

지역 소식 통

부안군, 폭염 취약계층
237세대 냉방비 지원

부안군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폭염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주거 및 냉방 여건 확인을 거쳐 냉방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열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했다.

주요 발굴 대상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폐가 등 비정형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주민과 폭방·노후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 냉방 설비가 없거나 취약한 가구 등이다.

현장 확인 결과 총 237세대(한부모가구 158세대 포함)를 폭염 취약계층으로 발굴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을 활용해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및 냉방비를 지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SK넥실리스 등 정읍 기업
지역 인재 양성 참여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는 지역기업과 교육·협력기관이 함께하는 '2026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6차례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정읍제일고와 글로벌학산고, 칠보고 등 지역 특성화고를 비롯해 전북 과학대학교 국제교육원, 다솜학교, 정읍교도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센터는 기관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취업 준비 단계부터 입사 후 직장 적응까지 필요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기업 채용설명회와 직무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직장문화 이해, 이미지메이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SK넥실리스와 (주)쑈바이오텍, 아보르페 등 지역기업 대표와 현지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실제 채용정보와 취업 준비 비결을 전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도시로 우뚝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 고창, 부산 벡스코서 'K-헤리티지' 주도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가... 190여 개국·전문가 3000여명 참석

고창군이 전 세계 유산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 무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이끌고 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 고창군은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결정 등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산 관련 국제회의이며, 대한민국에서 협약 가입 38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위원회에는 190여

개국 대표단과 유산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유산도시로서 유산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고창군은 K-Heritage House에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와 고창군의 홍보 부스를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도한다.

특히, 한국의 세계유산 AI배경 포토 부스와 퀴즈 프로그램, 고창의 7가지 보물을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한편,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고인돌), 세계자연유산(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관소리, 농악),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역), 세계지질공원(고창 선

운산 등), 세계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보유하여, 대한민국 유일의 유네스코 인증 7관왕을 달성한 명실상부 세계유산도시다.

개회식에 참석한 심덕섭 고창군수(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이자 유네스코 7관왕 대표 세계유산도시인 고창군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글로벌 유산 브랜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핵심사업 적극 대응 당부

부안군수 "전북 법정계획·도지사 공약 실행계획 대응 총력해야"

부안군은 20일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 특별자치도의 주요 법정계획과 민선 9기 도지사 공약 실행계획에 지역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로 부임한 방상운 부군수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간부회의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부서별 대응 방향도 함께 점검됐다.

권익현 군수는 회의에서 "도에서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9기 도지사 공약 실행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며 전 부서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도는 시·군별 안배 방식에서 벗어나 법정계획과 도정 핵심과제에 반영된 경쟁력 있는 사업에 재원을 선제적으로 집중할 방침인 만큼 현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획과 공약 실행계획은 향후 국·도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군 핵심사업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도와 전북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협의해 군 핵심사업이 법정계획과 도지사 공약 실행계획에 반영되고 향

후 국·도비 확보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관광·생활 인구 확대 등 주요 현안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발전과 급효를 구체화하고 건의 자료를 충실히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관광행사 안전관리와 방문객 불편 예방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주부터 변산비치파티와 격포·모항해수욕장 야간 공연 등 여름철 관광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관광과 및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전기·가스·소방·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야간 취약 시간대까지 현장 순찰과 상황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관련 부서와 읍·면이 긴밀히 협력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불편 없이 부안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 정읍 역사와 전통에 푹 빠지다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자 130명, 역사·문화체험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자 130명이 17일 정읍을 찾아 동학농민혁명과 전통예절 등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방문에는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동포 청년 100명과 국내 대학생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6박 7일 동안 서울과 부산, 김해, 강릉, 춘천 등 정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경험한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전통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와 함께 전북지역 대표 방문지로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방문해 역사 해설을 듣고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국내 대학생들과 교류 활동에 참여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달하루'를 찾아 첨단 정보기술 전시물(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한 정읍의 역사와 자연을 체험했다. 이어 선비문화체험관 '우리누리'에서 전통예절을 배우며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와 가치를 익혔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 한인 관계망(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을 형성한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정읍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제18대 고창소방서장에 시주형 소방정 취임

제18대 고창소방서장에 시주형 소방정이 오는 7월 21일 취임한다.

시주형 고창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고창소방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주형 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을 역임했으며, 고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조팀장, 소방감찰과 소방법무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소방행정과 구조·구급, 법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시주형 서장

특히 고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 추진과 현장 대응체계 강화는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서장은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고창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방과 대응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소방행정을 구현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방치 된 빈집을 주거·문화공간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참여자 모집... 내달 3일까지 접수

정읍시는 방치된 빈집을 주거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추가 모집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저소득층, 농촌유학생,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의 창작실이나 전시 공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4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에게 보일러 교체와 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한 곳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한 주택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4년 동안 무상

으로 임대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진행한 공모를 통해 빈집 1곳을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나머지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8월 3일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 시설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희망하우스는 귀농·귀촌인 등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공간뿐 아니라 공방과 화방, 작품 전시 공간, 마을도서관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시는 빈집 정비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